

홋카이도 동부의 목재 집적지

홋카이도의 임업은 홋카이도 전역에 광활한 삼림이 있는 덕분에 메이지, 다이쇼시대(1868~1926 년) 동안 발전했습니다. 1899 년에는 목재와 농산물을 해상으로 운송하기 위해 구시로항이 개항했습니다. 1901 년 구시로는 홋카이도 중앙의 도카치 지방 및 북부의 기타미와 철도로 연결되었습니다. 구시로는 홋카이도 동부의 교통 요지가 된 것입니다.

숲에서 벌채된 통나무가 철도와 강을 통해 운반되는 구시로는 목재 야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재는 일본의 다른 지역과 해외로 운송되었지만 일부는 구시로에 있는 공장에서 목재와 종이, 펄프로 가공되었습니다. 그중 몇 곳의 공장은 현재도 조업하고 있습니다.

땅이 눈으로 뒤덮이는 겨울에는 ‘바치바치’라고 불리는 말썰매를 이용해 숲에서 기차역이나 강배로 통나무를 운반했습니다. ‘바치바치’라는 이름은 도호쿠 방언으로 ‘짧다’라는 뜻을 가진 ‘바치’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바치바치’의 모양은 단순했으나 유용했습니다. 고정된 길이의 썰매 한 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의 짧은 썰매를 통나무의 앞과 뒤에 묶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두 대의 썰매는 어떤 통나무에도 맞게 조정할 수 있어 눈 위를 부드럽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